

## 애국심과 신앙심



황우여 장로

### 1. 하나님의 선물 – 국가와 교회

하나님께서서는 예수님 재림으로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 이전까지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다.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여 참된 평화를 이루는 교회, 그리고 겹을 사용하여서라도 정의를 지켜야 하는 국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두 선물은 하나님으

- 약력 :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사법대학원 졸업  
• 17대 국회의원  
• 사단법인 기독교정치연구소 대표

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므로 기독교인인 국민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국가와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으나 기독교인에게는 국경이 있다.

### 2. 국가의 500년을 여는 국기

역사를 보건대 한민족은 국가를 건설하면 대개 500년에서 1,000년을 이어간다. 신라가 1,000년이요, 고려, 조선이 500년이었다. 이제 대한민국을 건국한 지 50년이 되었다. 국기를 튼튼히 하여야 할 때이다. 부패도 일소하고 나라의 체제도 일신하여 500년은 지탱하여야 할 나라의 주춧돌을 놓을 때이다. 이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정신을 어떻게 가져야 하느냐”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아 국민적 결단으로 승화하여야 한다.

신라, 고려는 당시로서는 인류 최고의 가르침이었던 불교로 나라의 기틀을 잡았다. 이 때 우리 민족은 불교를 단순히 받아 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더욱 발전시켜 세계에서 가장 깊이 있는 대승불교의 꽃을 피웠고 이로써 나라는 건전하게 자라서 이웃 나라들의 잦은 침략에도 불구하고 1,000년, 500년을 굳건히 지탱할 수 있었다. 나라의 젊은이들은 건전, 용맹하였다. 화랑도의 가르침은 바로 불교를 호국불교로 승화하여 나라와 종교를 하나로 묶어 낸 결과이었다.

조선에서는 당시 가장 깨인 인류의 가르침인 유교를 받아들여 그 연원인 중국보다도 더욱 심오하고 정치한 성리학으로 발전시켜 나라의 정신을 순화하였다. 선비들의 기개는 하

늘을 찌를 듯 높았고 이순신의 구국정신은 실로 선비정신의 모범이 되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무엇으로 이 나라의 기틀을 세울 것인가? 불교를 다시 중흥하면 될 것인가, 아니면 유교를 다시 가다듬어 나라의 예의를 다시 찾아 삼강오륜을 빛나게 하면 될 것인가? 모두 어느 정도는 가능하고 또 쉬운 일일지도 모른다. 허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미 인류의 대다수가 참진리로 고백하였고 수많은 나라들이 이를 받아들여서 그 정신대로만 나라를 건설하면 세계를 이끄는 강대한 나라, 고상한 나라가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인 기독교만이 대한민국을 바르게 이끌어갈 새로운 정신이요, 합당한 종교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는다.

### 3. 나라의 기본인 군

어느 시대나 강성한 국가는 막강한 군을 전제로 존재하였고 막강한 군은 고도의 정신적 기반을 전제하였다. 군은 단순한 무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군은 정신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야만 그 결정체로 적을 제압하고 전승을 얻게 된다. 군에게는 우월한 화력 외에 전술, 전략이 중요하다. 그러나 군에게는 무엇보다도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정신자세가 요구된다. 이것이 없으면 군은 군으로서 존재할 수가 없다. 충성심은 충성을 바칠 대상과 충성심이 솟아 나올 원천이 전제되어야 한다.

군에서 충성이 솟아 나왔고, 조선의 의장과 의병은 삼강오륜이 반듯한 나라에 대한 충성에서 목숨을 초개로 여겼다. 이

것이 나라의 최후를 보장하였던 군의 기본이었다.

이제 우리 군의 충성의 대상은 이 나라 헌법이다. 충성의 원천은 헌법에 쓰여진 헌법이 수호하는 가치이다. 군의 임무는 바로 이 헌법이 가르치는 가치를 수호하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이루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요체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 때 부여받은 존엄과 절대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헌법을 지키고 헌법에 의하여 이룩된 이 나라를 지키는 일은 헌법이 이 나라에 부여한 바로 이러한 궁극적인 가치를 지키는 일이다. 우리 나라의 헌법이 규정한 최고의 가치가 바로 기독교의 정치사상에서 나왔다는 것은 세계 보편의 진리이다. 고로 우리 군이 지키는 이 나라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기독교의 가치이다. 결국 우리 군은 기독교를 지키는 것이다.

따라서 군장병들이 기독교를 이해한다면 이는 바로 군이 지켜야 할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이해하는 길이요, 이 나라가 지키는 기본적인 가치를 이해하는 지름길이다. 물론 불교나 유교의 가르침으로도 헌법의 최고의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설명할 수는 있겠으나 헌법이 생성되고 전파된 역사나 전통에 딱 들어맞지 않는다. 이 가치의 역사적인 생성과정을 살펴본다면, 그리고 그 구체적인 전개과정을 고려한다면 우리 헌법이 바로 기독교 사상에서 나온 인간관과 국가관에 기인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헌법에 쓰여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충성의 대상으로 삼으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생명이 없는 건조한 이성의 차원에 머무는 충성일 것이다. 기독교 장병이 아니라면 왜 이 나라를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하는가를 신념이나 지식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역사적인 맥락에서 인류가 취해 온 신앙의 경지에서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의 교회를 지키는 장병들은 바로 기독교 정신에 투철하여야 한다.

군의 1인 1종교 운동은 우리 나라 군의 오랜 전통이었는데 이러한 운동이 널리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바로 신앙전력화라는 군의 본질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전력화는 바로 기독교를 전파하고 기독교를 신앙하는 군을 양성하는 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왔던 것은 이 나라의 헌법이 수호하는 가치가 바로 기독교가 가르치는 가치이므로, 기독교의 전파가 가장 적절한 신앙전력화로 국민들에 의하여 이해되었고 장병들에 의하여 수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의 1인 1종교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신앙전력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널리 전파하도록 군에서는 힘써야 한다.

#### 4. 다종교사회의 군종제도

우리 나라에도 군종제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없는데 이는 군이라는 폐쇄적인 특성으로 인해 목회자의 자유로운 출입이 어려우므로 군인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군목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군종제도는 그 조직과 제정은 국가의 몫이라도 목회활동은 교회가 담당하고 그 감독 아래 놓이므로 국교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로운 종교행사는 군 안에서 보장되어야 하므로 군종제도는 국가와 교회의 분리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전군을 기독교 신자화하고 군종으로는 군목제만을 두어야 한다고 소망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국가와 군에 대한 믿음 이요 바람일 것이다. 그러나 어느덧 우리 나라에 기독교가 최대 종교로 되었다 하더라도 아직은 다종교 사회이고 또 종교의 자유와 관용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헌법이다. 국가는 모든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 비록 그들이 비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모든 국민의 고향으로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기 모든 종교가 군종제도를 활용하겠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군소종단에 군종 문제를 허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적어도 국가가 그 존재를 인정하고 개별적으로 특별히 공적으로 종교활동을 조직과 제정 면에서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와 실체를 가진 종교라야 할 것이다. 신구교에 대한 군목과 군승을 군종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연유이다.

전통적인 제 종교에 대하여 각기 군종제도가 용납된다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기독교 군종제도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군 자체의 고유 목적에 의하여 기독교 군종제도를 사실상 우선하여 받아들이는 것은 합리적이므로 종교의 자유에 반하지 않는다. 오히려 바람직할 것이다.

비기독교의 군종제도는 군종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인정될 정도의 다수 장병으로부터 선호되어야 하고 군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허용될 것이다. 예컨대 군을 부정하거나 집총거부를 설파하는 종파는 비록 군장병들이 일시적으로 선호한다 하더라도 군의 본질에 배치되는 종파이므로 군종으로

군 안에서 이를 전파하도록 허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끝으로 헌법가치에 반하는 사이비 종교집 단에 대하여도 군 종제도를 용납할 수는 없다.

## 5. 징총거부, 양심적 병역기피

‘여호와와 증인’의 징총거부를 처벌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냐의 문제가 헌법소원으로 제기됨으로써 국가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여기서 양심적 병역기피의 문제를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이 종파는 지상정부와 국가를 근본적으로 거부하므로 한기총을 비롯한 기성 교회에서는 기독교의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독교 신앙에 반하는 정부에 대한 저항권으로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정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징총을 거부하고 불복종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양심상 인정되는 바이다. 우리 헌법상으로는 침략전쟁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위전쟁만이 인정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기 위하여 국토를 침공해 오는 적군에 대하여 총을 들고 전쟁을 해서라도 피로써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자위전쟁을 기독교의 이름으로 거부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대법원이 양심상 징총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도 같은 입장에 선 것이다.

다만 헌법적으로는 불가치하게 모든 세계관에 대하여 관용으로 용납하여야 하고 그들에게도 국가의 보호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이들의 신념을 정면으로 부인해 버리는 것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서구의 많은 기독교 국가에서도 이들의 양심적 징총거부를 양심의 발로로 받아들이고 징총을 강요하는 대신 대체복무를 허용하여 병역을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가 종교적 신념을 설득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군으로서도 기드온 300용사의 말씀에서 보듯이 징총을 거부하는 사상을 가진 병사들이 군에 들어와서 군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리에 입각한 조국 대한민국을 수호하고자 충성심을 불태우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정예 군장병으로 군을 조직하여 나라를 지키게 하는 것이 오히려 떳떳하고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우리 나라는 병역의 의무를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요구하고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양심의 자유권에서 양심적 병역기피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요구 사이에는 너무나도 중대한 법익의 충돌이 발생하므로 궁극적으로는 헌법이 명문으로 분명한 해답을 주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어찌되었든 징병적 성격을 띠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국제인권기관의 대체적인 경향이다(1998. 77호 UN 인권위원회 결의: 1994. 유럽 의회 결의).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징총거부를 처벌하는 현행 형법제도가 위헌이라고 보아 대체복무를 허용하라는 결정이 나더라도 양심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고 단순하게 즉시 대체민사역을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고 오히려 국민간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대체민사역을 규정하는 입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담을 평등히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므로 민사역의 내용이나 그 기

간을 병역의 부담에 비하여도 충분히 대등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아야 하며, 민사역의 내용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보장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것이어야 대체성이 인정될 것이다. 또 병역의무는 현역복무를 의미하지, 반드시 징총복무를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비전투적 복무까지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자신은 징총을 거부하면서, 아예 병역을 기피하면서, 자신의 생명과 재산, 가족들의 자유와 권리는 다른 국민의 피와 땀으로 지켜달라는 요구란 비겁하고 수긍할 수 없는 논리이다. 그러나 비록 비겁한 자들이거나 진리를 잘못 믿어 나라에 바칠 마땅한 충성심을 저버리고 징총을 거부하는 이단자들을 우리의 목숨을 바쳐 지켜주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바로 이러한 관용조차 이 나라의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의 한면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헌법질서라면 우리는 참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과 이 나라의 지도력은 바로 병역의무를 다하여 이 나라를 지키는 기드온의 300용사에게 부여될 것은 당연한 일이다.